

안광한 전 사장, 최소 2억 원 이상 '황제 전관예우'

퇴직금 포함해 6억 원 육박, 명분은 '저품격 재취업' 방지

안광한 전 사장, 퇴임 이후 챙긴 회사돈 6억

안광한 전 사장에 대한 '전관예우' 내역이 베일을 벗었다.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어제(20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전임 사장 자문위원 위촉'(안)을 보고했다. 이은우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1년 간 경영 자문위원에 위촉돼 비상임으로 활동하며 최소 2억원 상당의 예우를 받을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자문료 월 1천만원 ▲활동비 월 3백만 원 ▲문화카드비 월 12만원 ▲건강검진비 연 2백만 원 등이 기본으로 주어지고,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운전기사 포함), 통신비, 4대보험 등이 추가 지원된다.

안광한 전 사장은 이미 퇴임과 함께 3억원이 넘는 퇴직금과 '특별퇴직공로금' 명목의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갔다. 안 전 사장이 퇴임 이후 챙겨가는 회사 돈이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저품격 재취업 방지가 자문계약의 목적 ?

회사가 자문위원 위촉의 목적으로 내세운 사유들은 상식 밖이다.

- ▲전임 사장의 경영 노하우 활용을 위한 경영자문 실시
-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밀사항 보호를 위한 완충기간 확보
- ▲본사 및 관계회사 운영을 총괄한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 ▲저품격 재취업 등 부적절한 경제활동 방지

엄기영 전 사장 등 퇴직 사장들에 대한 전례에 비춰볼 때 경영 자문 성과에 대한 기대는 매우 회의적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엄기영, 김종국 등 전직 사장들의 자문 실적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회사 기밀 보호는 전 최고경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 입막음 용돈을 챙겨줘야 할 이유가 아니다.

결국 남은 것은 전임 사장에 대한 품앗이성 '과잉 예우'일 뿐이다. 그럼에도 '저품격 재취업'이 우려된다는 상식 이하의 명분까지 들이대는 것은 회사 스스로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비공개 밀실 보고, 전관예우 은폐 의도 ?

방문진의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어제 이은우 본부장의 보고를 앞두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과 고성이가 오가는 사이 여권 이사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사람 씩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폐회됐고, 고영주 이사장은 이은우 본부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문위원 위촉 취지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밀실 회의를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가.

회사 임원의 보수 규정은 방문진의 의결 사항이다. 사장 퇴임과 동시에 주어지는 거액의 전관예우 역시 사실상 현직 임원의 보수 규정에 준해 방문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 퇴임 후 별도 계약 형식으로 전관예우를 퍼주는 꼼수를 펴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안 전 사장의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보수가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안 전 사장의 사무실이 서울 시내 모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문도 돌고 있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미 계약 사항이 집행되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계획일 뿐이라며 끝까지 부인했다. 만약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문계약 주체는 김장겸 사장 ?

이은우 본부장은 지난 방문진 이사회에서 "자문 계약은 김장겸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문계약의 당사자는 김장겸 사장이라는 뜻이다.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회계 감사의 대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김 사장은 회사 돈으로 안광한 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무슨 성과를 얻는지를 낱알이 밝혀야 한다.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MBC 파괴에 앞장선 두 전현직 사장이 품앗이처럼 회사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